

문화수도 만들기 시민들 나섰다

5월 종합계획 확정 앞두고 직접 의견 제시 22개 단체 협의체 구성...내일 결의대회도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안 확정 오는 5월로 다가오면서 종합계획에 광주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보완과 전문공연장 신설 등 문화전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이 문화중심도시와 관련, 시민들의 역할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결성하고 있으며, 문화전당이 들어서는 동구 지역의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지역발전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시민사회의 중심 의제로 끌어냄과 동시에 국책사업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문화연대를 비롯한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와 여성단체·오일단체, 전남대문화예술특성화사업단 등 7개 학술단체를 포함한 총 22개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27일 오후 광주YMCA 무진관에서 출범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의견 차이나 갈등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을 총집결해야 할 때"라며 "범시민협의체를 만들어 사업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 경실련과 광주YMCA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의를

개최, 조만간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 시민단체들과 연석회의를 갖는 등 시민사회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광주 동구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수도 사업 동구 비상대책위원회와 동구지역 사회단체들은 오는 29일 오후 옛 전남도청 앞에서 1만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건물 자체만으로 국제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 기능이 강화된 문화전당 건립 ▲도심활성화를 위한 문화전당 주변 인프라 구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당당한 한국인이예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32명이 27일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 증서를 받은 뒤 활짝 웃고 있다. /위정각기자 jwi@kwangju.co.kr

한국형 어뢰 단거리도 통했다

박태환 200m자유형 동메달 ▶22번

52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제 52회 전국민의 호남 예술제

국회의장상·문광부장관상 시상
4월 12일 접수 마감·시상 발위 확대

- ▶신청자격: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신청기간: 3월 26일(수)~4월 12일(수)
- ▶신청처: 호남문화재단 (062-222-8111)

정치권 한미FTA 반대 확산

김근태-천정배-정동영 협상 중단 요구...이명박·박근혜 찬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범여권 대선 주자들은 한미 FTA 협상중단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이 문제가 연말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민생정치모임' 소속 천정배 의원이 26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협상중단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이

어, 27일에는 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과 우리당을 탈당한 임종민 의원이 단식농성 대열에 합류했다.

김 전 의장은 농성돌입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우원식 체수한 의원 등 한미 FTA에 비판적인 의원 13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뒤 성명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은 짜여진 시간표를 따라 질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참상이고, 재앙"이라며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도 "플러스

협상이 돼야 수용이 가능하다"며 '조 건부 반대' 입장을 밝혀 김근태-천정배-정동영 3자가 공동선전을 펴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 FTA 체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우리당 지도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FTA 특위 회의에서 "FTA 평가단을 구성, 협상결과가 나오면 국가적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면밀히 계산해보고

이를 토대로 당론을 정한다는 입장"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한미 FTA에 대한 찬성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 차원의 충분한 대비를 주문하는 한편,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단식농성을 비판했다.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도 기본적으로 FTA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원식 의원 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u.ac.kr

받는기쁨, 주는즐거움 - 금강·랜드로바 20%세일

3월 28일~4월 8일까지(12일간) / 전국매장 동시 실시

금강세븐 상품권으로 구입 | BIG & Small Shop (북대륙스킨코퍼레이션) 6시간 특별 판매합니다 | 광주본점: 062-227-0292

LANDROVER Bullock renoma PGATOUR LPGA 금강랜드로바